

2025 여름방학 지리학사 스터디 – 마르크스주의 지리학

석사과정 박제욱

1. 서론
2. 현대마르크스주의 지리학의 태동
3. 공간의 생산과 불균등 발전
4. 자연의 생산
5. 급진적 문화지리학
6. 생각해볼 만한 점

1. 서론

책에서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를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마르크스주의, 더 나아가 마르크스 지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극히 일부만 받으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 등을 만들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남겨진' 핸드폰을 분해 및 재가공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의 예시 말고 새로운 것을 들여보자면, 한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단순히 자본의 흐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자본주의적 사고에 따라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불균등 발전'에 대한 21세기 대한민국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때 고고학을 전공하면서 마르크스주의 고고학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게도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였듯 이러한 차이가 과연 비관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불의한 체제, 즉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물일까요.

책에서는 3장에서 나오지만, 이 글의 순서상 서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핵심인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계 이면에 더 깊은 실체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이론인 역사유물론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류 사회의 역사가 봉건제를 지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단계로 불가피하게 진보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사회 단계에 있어서 생산관계(Relations of Production)를 가지게 되는데, 봉건제의 주인-노예 관계, 자본주의의 자본가-노동자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역사유물론의 중요 개념인 토대-상부구조 모델(Base-Superstructure Model)을 언급한 마르크스의 서술 『정치경제학 비판 서설(Preface to a Contribution to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삶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필연적이고 특정한 관계에 매이게 된다. ... 이런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로부터 법과 정치적 상부구조가 비롯된다. ... 물질적 삶의 생산양식은 대개 사회적, 정치적, 지적인 삶의 과정의 조건이 된다. (Marx 1857: 159-160)

그리고 각 단계의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 자체도 생산의 비효율과 연결 지었습니다. 즉,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적 전환되는 과정은 봉건제의 생산관계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생산의 증가를 제한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가 소유한 토지에 소작농을 귀속시키는 봉건적 사회 환경이 근대 초기 유럽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게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의 태동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기존 공간과학에 입각한 연구에 대해 신물을 느끼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재한 문제들(생태, 도시, 무역 등)을 다시 돌아보기 위한 시각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지리학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조건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사고방식에 있어 이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정의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 1973)』에서 그는 미국의 도시계획과 소득 분포 문제에 대해 다루며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튀넨 실증주의적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그것에 수반되는 측량과 분류 등을 통해 이론이 사례에서도 맞는 과정에서 옳은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나, 그것은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지리에서 기인한 변수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¹⁾

특히 미국의 빈민가 게토(Ghetto)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 상태를 더욱 분석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쟁적인 민간 주택시장을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도시 토지시장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공간의 생산과 불균등 발전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들은 공간이 생산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공간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었고 이는 자본주의 아래 생산관계(노동자-자본가)의 결과물로 이윤 창출을 위해 자연을 변화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닐 스미스는(Neil Smith)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그에 따른 주기적 위기²⁾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지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공간의 효율적 배열이 이윤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에 공간이 자본주의 작동 과정에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이 이루어지면서 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이 항상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공간의 자본주의적 활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지역의 불균

1) 특히 관련한 사례로 시카고의 거주지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실증주의적 분석은 시카고의 특수한 역사와 지리에서 기인하는 부동산 분할과 판매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종차별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자본주의의 모순을 쉽게 설명하는 문장이 "돈이 다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본주의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자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인간의 본성 특히 욕심이라는 감정으로 자본주의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간의 생산 관련 개념을 정립한 것은 프랑스의 이론가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인데 그 핵심 개념으로는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적 공간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에 대한 세 가지 개념과 학자들의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는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자본주의의 결과로써 사회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변형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 자연의 생산

과거의 인식에서 생산과정에서의 자연은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하비의 제자 스미스는 자연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면서 '자연의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미스가 인식한 첫 번째 자연은 인간의 영향력을 벗어난 영역의 원시적인 자연을 의미하고 두 번째 자연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자연으로 정의하며, 첫 번째 자연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과정으로 두 번째 자연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보호지역 등 의도로 보호되는 야생의 환경들, 자본주의의 정수인 도시에서 보이는 자연적인 요소들, 자본주의와는 동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자본주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산성비 문제 등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접근은 토양침식이라는 지형 현상이 다양한 자본주의적 행위들의 결과로써 가속화되는 것과 결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범위한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분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5. 급진적 문화지리학

1980년대부터 마르크스 이론에 영향을 받아 북아메리카 문화지리학의 변화를 꾀한 신문화지리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요소들을 일부 가져와 급진적인 사회 비판에서 문화의 능동적 역할을 재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 이론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가 일어나는 양상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며 투박한 지배보다 상식의 구축을 통한 세련된 지배를 행사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시로 미국 시골 지역 백인 빈민 노동자들이 분명 민주당의 정책으로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현대 한국 정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결국 그람시가 주장하고 싶었던 말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토대-상부구조 모델로 인식하고 주장하였던 것들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문화투쟁의 주요 지점으로서 문화지리학의 가능성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의 영역도 동시에 생산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문화유물론'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기존 마르크스주의에서 더 확장해 나간 것으로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문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토대-상부구조 모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윌리엄스에게 축구게임이나 오페라는 자동차 공장이나 은행만큼 더 물질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특히 신문화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경관'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경관이 자연적이거나 문화적인 것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문화적 경관은 자연경관 위에 문화적 과정을 덧입힌 결과물로 간주하고 전적으로 지도화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단순하게 물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데올로기적에 치우치지도 않은 경관의 이중성을 연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문화지리학자들의 경관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는 경관이 아이디어이자 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관에 담겨있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돈 미첼(Don Mitchell)은 경관에 대한 비판 연구가 대표적인데, 미첼에게 있어 경관은 인간 노동의 산물로서 고정된 형태로 구체화된 노동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 문화지리학은 2000년대 이후 더욱 확장되어 젠더와 섹슈얼리티, 육체적 능력, 연령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퀴어 이론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비판이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6. 생각해 볼 만한 점

- 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해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②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경관은 그 자체(물질)인가요? 이데올로기인가요?
- ③ 하비가 이야기했던 빈민가 문제의 해결 방법(경쟁적인 민간 주택시장 →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도시 토지시장으로 변환)은 21세기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